

창작의 산실을 가다 <3> 문병란 시인

무등산을 품은 자락 희망이 피어나는 곳

/얼음장 밑에서도 /고기는 해업을
치고 /눈보라 속에서도 /매화는 꽃망
울 틈다 /절망 속에서도, 삶의 끈기는
희망을 찾고/사막의 고통 속에서도/
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/
눈 덮인 겨울 발고랑에서도 /보리는
뿌리를 뻗고 /마늘은 밭집에서도 /그
매운맛 향기를 지닌다.(희망가 중)

문병란(73) 시인의 자택이자 작업
실 광주 지산동을 찾아가는 길 내내
그의 시 '희망가'를 떠올렸다.

활겨온 시대, 시를 통해 희망을 갈
구하는 것은 독자의 '권리'겠지만 그
것이 하필 저항시인·민족시인의 대
표 주자 문병란 시인의 시라... 아리
나기 아닐까?

눈 쌓인 무등산 품에 안기듯 취재
차는 어느새 산수동 법원을 지나 지
산유원지 아래 주택가에 다다랐다.
평범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집을 찾아
서성거리는데 저만치 한 블록 건너
반가운 미소로 우리를 반기며 손 흔
드는 선생을 만날 수 있었다.

'직녀에게'로 잘 알려진 시인이 이
곳 지산동에 터 잡은 건 1966년 광주
일고에서 교사로 일할 때부터다. 그
리고 40년을 한 곳에서 살았으니 지
산동은 문 씨에게 있어 삶의 공간(1
남 3녀가 여기서 자랐다)이자 창작의
산실인 셈이다.

이곳 2층 방 조용한 작업실에서 '호
수' '평의 연가' '인연서설' 등 주옥같은
시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얻었다.

세상을 향한 그의 언변은 여전히
거침없었다.

"시집 내기도 미안한 시기야. 경제
난,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담좌의 시

대에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판도라의
상자에 남아있는 그 '희망'이라는 사
기꾼,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처방
인 그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노래한
시가 바로 '희망가'지, IMF 때 썼는데
대구의 시비동산(팔공산 밑 제천시)
에 시비로 서 있고, 모 재벌 총수의 예
송시로도 알려져 있어. 교도소 직원
이나 교도소 가족들도 좋아하는 시
고,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
는 시인에게 '희망가'를 구걸하고 있
으니 딱한 일이야."

문 씨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 작업
을 한다. 요즘엔 일 주일에 원고지

문 씨는 "한참 '직녀에게'가 북쪽
사람들에게 인기더니 이제 경상도 사
람이 내시를 좋아해 준다"며 "주로
서정시나 40대 중후반들에게 호응이
좋은 것 같다"고 자랑했다.

문 씨에게 2008년은 의미 있는 해
였다. 지난 12월 무등산 지산유원지
아래 자신의 호를 건 서은문학연구
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. 연구소는
2004년 결성된 시 동인 '서은문학회'
의 학습공간인 동시에 지역 문학인들
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말 그
대로 '시인의 집'이다. 문 씨는 매주
화요일·목요일 두 차례 이곳에서 열

'호수' '인연서설' 등 주옥같은 시 모태

"아직도 '희망가' 구걸하는 세상 딱해"

하반기 연작시 발표...전집 발간도 준비

200장 정도 분량의 글을 쏟아내고 있
다. 시 뿐 아니라 언론사 원고와 책 발
문, 후학 지도를 위한 강의 노트를 작
성하며 하루하루 바쁘다. 결혼 시즈
주례 릴레이도 변함이 없다. 최근엔
그의 주례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
아름다운 주례사로 선정돼 기쁨을 주
기도 했다.

작가의 방에는 외지 손님도 많이
찾는다. 경상도며 울산서 시를 배우
러 직접 찾기도 하고 서신으로 시를
보내 평을 청하기도 한다.

리는 동인들의 시 품평회에 참석, 후
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.

2000년 정년퇴임 이후 늘 젊은이들
과 현장에서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그
는 평생 업인 '가르치는 일'을 놓지 않
았다. 명예교수로 후학을 만났고, 재
작년부터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
문학반 지도교수로 나가고 있다. 평
생교육원에서 강의하며 40~50대 중
반 아저씨, 아줌마 학생들과 '만남'
행복하게 즐기는 중이다.

문씨는 올 초 서정적인 시편을 모
은 26번째 시집 '매화연풍'을 간행할
예정이며 전집 발간도 본격적으로 준
비하고 있다. 하반기에는 작년부터
준비해온 '늘어가기' 연작시로 시집
도 엮는다는 계획이다.

"연작시 '늘어가기'는 나 자신이 늘
어가며 젊은 사람들에게 스스롭없이
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본 거야. 주
제는 다르지만 부제에 1번부터 140번
까지 번호를 붙여 구성했지. 작업은
거의 마무리 단계야."

또 예전에 발표한 서사시 '동소산
의 머슴새'에 애정을 표한 문 씨는 후
속작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.

"아마도 시대적 배경은 '동소산의
머슴새'에 등장하는 소년 의병 바우
가 안 대장을 피눈물로 보내고 옥에
서 풀려난 뒤 10년쯤 지날 때쯤일 것
같아. 바우가 독립투사로 활동했을
1919년 3·1운동 즈음이 중요한 배경
이 되겠지."

이와함께 문 씨는 민족대표 33인
로 3·1운동에 참가했다 유일하게 옥
사한 화순출신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
묵 선생(1862~1919)과 관련한 작품
도 구상중이라고 했다.

말을 끝낸 뒤 살짝 비친 그의 미소
속에서 아직 식지 않은 창작 열정을
읽을 수 있었다.

/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.co.kr

■ 약 력

▲1935년 화순 출생 ▲조선대 국문
과 졸업 ▲1959년 '현대문학'에 '가로
수' '밤의 호흡' '꽃밭' 등의 시가 김현
승 시인 추천으로 등단 ▲요산문학
상, 한림문학상, 향토문학상 등 수상
▲조선대 국어국문학부 문창과 교수
역임 ▲시집 '정당성' '죽순밭에서'
'평의 연가' '동소산의 머슴새' '인연서
설' '민들레 타령' 산문집 '민족문학론'
'연애하는 사람은 강하다' 등 다수.



요즘에도 일주일에 원고지 200매 분량의 글을 쓰는 문병란 시인은 "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'희망'을 노래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시를 쓴다"고 말한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

문병란 시인이 자신의 호를 딴 서은문학연구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SAFA 서울 미세먼지 배어

만제 어디서든 조이케질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.

조이케질 SF-01

042)365-3200 • 1688-1471 • 02-487-8256

NAVER